

지역 소식통

부안군, 전통식품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부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협력해 추진하는 2025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고유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자치도 내 우수 전통식품 제조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강화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대상은 부안 내 전통식품(전통주 포함)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기업(수산분야 포함)으로 전통식품 제조기업 운영실적 1년 이상인 기업(영업등록증 기준)이며 사업지원은 공동마케팅 프로모션과 마케팅 활성화 지원 및 제품개발 등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식품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통식품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성장과 판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내돈내산 맛집
탐방기' 이벤트 진행

정읍시가 지역 맛집과 함께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시작한다. 직접 맛본 맛집 후기를 SNS에 올리면 정읍사랑상품권과 숙박권까지 받을 수 있다.

정읍 맛집 내돈내산 탐방기라는 이름의 이번 이벤트는 음식 관광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시민들이 직접 맛집을 이용한 뒤, 후기를 SNS에 공유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음식점 이용 인증사진과 해당 월 결제 영수증 사진 찍기 △개인 SNS에 필수 해시태그와 영수증 포함 사진 게시 △네이버 폼 작성(SNS 링크 첨부)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벤트 신청은 시청 SNS 채널이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가능하다. 단, 영수증 금액이 2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자들에게는 푸짐한 혜택이 주어진다.

/정읍=김대환 기자

소나무재선충병 신속·철저 방제 총력

고창군, “산림청 지침은 물론 타 지역 사례·계절적 요인 감안해 적절하게 추진중”

고창군이 “소나무재선충병 대처가 늦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 산림청 지침은 물론, 타지역 사례, 계절적 요인(겨울철) 등을 고려해 적절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창군은 지난해 10월4일 흥덕면 신송리에서 최초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보고 이후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신속하고 철저한 방제대책’을 추진해 왔다.

최우선으로, 재선충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처가 이뤄졌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발생지역 마을이장 회의 소집과 조정수 놓기 대상 방제계획 설명, 반출금지구역내 소나무 이동단속 등이 속 가빠게 이어졌다.

이와 동시에 피해현장 조사도 진행됐다.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드론을 활용한 감시지역 조사와 시료 채취,



검사 작업 등도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산림 담당공무원은 일일이 산림 소유주들과 연락을 취하고, 동의를 구하며 백방으로 뛰었다.

이를 통해 12월16일 64.4ha의 산림에 대해 방제사업을 착공했다. 첫 재선충 발생보고 64일만이다. 통상 겨울철에는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산림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2월부터 재착공한다.

산림청이 각 지자체에 배포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따르면 피해 고사목 방제기간은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군은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감염목 제거와 예방 나무주사를 실시하여 매개충 활동이 이전인 4월 이전에 1차 방제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설 연휴 대설 안전사고 최소화 집중 만전 기해

부안군, 긴급 제설반 가동

부안군은 설 연휴 기간인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긴급 제설반을 가동해 대설로 인한 안전사고 최소화에 만전을 기했다고 2일 밝혔다.

부안지역은 지난 27일 오후 7시부터 29일 정오까지 대설주의보가 발령되는 동안 평균 5.9cm, 최대(행안면) 13.7cm의 적설량이 관측됐고 영하로 떨어진 기온 탓으로 도로 곳곳이 결빙돼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군은 지난 28일 오전 4부터 관내 주요 도로인 국도 5개 노선, 지방도 6개 노선, 군도 22개 노선, 농어촌도로 267개 노선 등에 제설장비 11여대, 제설제 235톤 등을 투입해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또 언덕 나들목, 회전 교차로, 집단 거주지역, 상설시장 등 결빙 취약구간 등에는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해 강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특히 상습결빙구간에는 도로 열선시스템(우측제, 공항제, 백포제, 중계터

널)와 열선분사장치를 가동해 도로 결빙을 줄이고 교통사고를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읍면 제설방재단은 제설 장비 진입이 어려운 마을안길, 이면도로 등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해 고창을 방문한 귀향객들의 불편을 크게 줄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그린바이오 산업 본격 육성... 529억 투입

정읍시가 정부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그린바이오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본격 육성한다. 총 529억원을 투입해 미생물과 천연물 중심의 바이오 산업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와 기업 지원에 나선다.

시는 먼저 ‘효능평가 지원사업’을 통해 효능 검증 및 안전성 평가 체계

를 구축했다. 지난해 10월 준공된 ‘GMP 기반 미생물 산업화 지원시설’과 연계해 기업들이 상품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소재 검증과 대량 공급 기반을 확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올해 양돈 농가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한우 농가까지 대규모 제품 실증사업을 시행해 상품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그린바이오소재 첨단 분석시스템 구축’ 국가공모사업을 유

치해 자동화·고속화·표준화가 가능한 바이오판독리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재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기업의 제품 개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준공될 ‘공유인프라’를 통해 40개의 기업 입주 공간을 마련, 소재 개발부터 제품화, 실증, 대량생산, 창업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은 지난달 31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할 것”

고창군, 농업·농촌·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위촉식 개최

고창군은 지난달 31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는 고창군의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관련된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로, 농촌활력분과, 축산분과, 산림분과, 건설분과 등 총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김춘욱 한국농업인단체연합회장, 박용철 한돈협회장, 김영진 산림조합장, 김세형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농어촌사업부장 등 각 분야 전문가 21명이 새롭게 위촉되었다.

이들은 2027년 1월 22일까지 임기를 수행하며, 다양한 농림축산식품 사업과 지역 발전계획 심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다.

위촉식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2025년 주요 군정 변화와 홍보 사항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농민공익수당 지급 확대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확대 △산림소득사업 추진 △취약계층 주택 피해 위험수목 제거 △농업용 관정 사업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위원들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심의회가 고창군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 발전을 위한 위원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참여를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저탄소 농업 실천 농업인 활동비 지원

정읍시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저탄소 영농 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의 신청을 오는 2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벼농사 시 중간물대기, 논물 얇게 갈라대기, 바이오차 투입과 같은 저탄소 농업 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간물대기는 모내기 약 한 달 후부터 용수 공급을 중단하고 논바닥이 갈라질 때까지 2주 이상 말리는 작업이다. 논물 얇게 갈라대기는 2~5cm 깊이로 얇게 물을 대고 자연적으로 말린 뒤 다시 물을 대는 과정을 반복하는 방식이다. 바이오차는 목재 등을 고온

에서 산소 없이 열분해해 만든 숯 형태의 유기물료, 농경지에 투입하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낸다.

지원 자격은 당해연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논을 벼 재배지로 활용하는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경작 필지를 포함해 20ha 이상의 규모를 충족해야 한다.

지원 단가는 중간물대기 15만원, 논물 얇게 갈라대기 16만원, 바이오차 투입 36만 4000 원으로, 중간물대기와 논물 얇게 갈라대기는 병행하여 신청 가능하며 바이오차는 ha당 200kg 이상 투입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법인·생산자단체는 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